



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보건복지부는 8월 17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,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, 공공의료 확충 방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함.

-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해 향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 및 부과하는 방안, 효율적 의료자원 관리를 위한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, 의료취약지에 대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함.
-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논의된 개별 안건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며, 9월 정기국회 때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2012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임.

■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가 실제 부담능력과 부과요소가 일치하지 않아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도록 함.

- 직장가입자에게도 근로소득분 보험료와는 별도로 사업, 금융, 연금, 임대 등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며, 피부양자 인정요건에도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할 계획임.
- 반면, 은퇴자 등 실질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 및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임.

■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를 위하여 인력, 병상, 장비에 대한 효과적인 수급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함.

- 의과대학 및 전공의 정원에 대해 합리적 수급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, 인턴제도 폐지, 진료과목별 차등화된 레지던트 수련기간 설정 등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을 추진함.
- 수준 높은 입원 환경을 위한 품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, 전략적 병상관리 계획을 통하여 병상자원의 합리적 관리 기반을 마련함.

- 무분별한 의료 장비 도입을 억제하고, 품질 제고를 위한 의료 장비 관리체계를 구축함.
 - 의료 장비별 표준코드를 부여하여 도입에서 폐기까지 사용 투명성을 제고하고, 특수의료 장비 관리대상을 현행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며, 동시에 노후 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임.

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 접근성 강화,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,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 등이 제시됨.

- 의료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, 지정된 의료취약지에 지역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함으로써 공적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함.
- 주요 공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재원에 따라 통합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 전달체계를 일원화하며,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등과 같은 추가적인 안전망 제도 도입도 검토함.
- 국공립 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면서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확보 시스템을 마련하여 공공의료의 경쟁력을 강화함.

(보건의료미래위원회 회의 결과, 보건복지부, 8/16)